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국화꽃 470본 식재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일 국화꽃 470본을 화분에 식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꽃 심기는 오는 9월 27일에 열리는 '제34회 설천면민의 날'과 '무주비탈길축전제(9. 6. ~14.)'에 대비한 펼쳐진 것으로, 마스터 국화(보라색, 분홍색), 일반 소국(노란색)을 심어 행사 때까지 무주군 산림조합 비닐하우스에 보관할 예정이다.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 박종용 위원장은 "가을 계절 꽃인 국화가 만개할 때까지 관리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국화꽃 심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 설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5명의 위원들이 지역주민 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발전,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신문방송사, 남원 지역아동 대상 멘토링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 학생들이 최근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40여 명을 대상으로 신문과 영상 만들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원시 원광지역아동센터와 신나는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대학생 멘토 30여 명과 함께 기획, 인터뷰, 취재, 글쓰기, 촬영, 편집 등을 익혔다. 이들은 어린이 기자로 활동하며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 김중현 국립민속국악원 원장, 박강웅 남원시웃살길공예관 관장을 직접 인터뷰하고, 또 남원시청 관광과, 전북은행 남원지점, 피치파이크 복숭아 농장 탐방 취재 등을 체험했다. /장은성기자



남원 금동, 면장수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5일 관내 식당인 면장수(대표 윤태정)를 착한 가게 2호로 선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착한 가게 나눔 캠페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참여 가게에는 현판과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보급된 기부금은 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윤태정 대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산내면 지사협, 3차 회의 개최

남원시 산내면은 최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함께하는 행복 산내를 위한 2025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위촉과 해촉, 지정가탁금 모금 및 집행현황, 25년 특화사업 추진 상황 및 결과보고, 지리산비탈길 구석구석방문단 실시 계획에 관해 협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는 △홀몸어르신 생신방상 차려드리기 △반찬배달 건강재움 사업 등으로 홀몸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며 인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행사로, 실내외 주거환경이 필요한 27정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책과 함께 놀아요’ 여름방학 이벤트

무주군, 상상반디숲 내 형설지공도서관서 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이 무주상상반디숲 내 형설지공도서관에서 책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8월 5일부터 25일까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 속으로 떠나는 세계 문화”를 진행(18:30~ 총 4회)한다.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 관련 도서를 통해 나라별 공통점과 다른 점을 공유하고 나라별 문화 물품 등도 체험하는 시간도 갖는다. 8월 31일까지는 여름방학 맞이 특별 이벤트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도서 대출 시 책 속에 숨겨져 있는 ‘몰든 티켓’을 발견하면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여름 관련 책을 읽고 자신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들어 보는 ‘책은 담은 케이스’, 태극기를 직접 그려보고 소정의 가치를 나누는 광복절 기념 ‘태극기를 품은 하루’도 진행된다. 또한 유아 대상 “작은 동화나라 책이랑 놀이랑”도 마련된다.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내 손으로 쓱쓱” 프로그램(19:00~ 총 4회)도 열린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40명)해 세계 각국의 수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14:00~ 총 3회 / 30명) 세계 전통음식 요리수업 “다 함께 요리 보고 세계 보고”를 통해 문화간 소통의 기회를 갖는다.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13:00~ 총 3회 / 30명)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세계 구연동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각 나라 문화와 관련된 동화 구연을 통해 세계문화여행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성인 대상 “투명한 가을 아트(꽃잎 등을 활용한 레진 아트 체험)”, 온 가족 대상 “도서관 할로윈 쿠키”가 마련되며 11월에는 “캐릭터 접시 공방”, “북바인딩 클래스”, 12월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산타가 좋아하는 케이크 만들기”, “실로 만드는 스트링 트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현민 무주군청 태권문화과 도서관팀장은 “각 프로그램 참여자는 시작 1주일 전에 형설지공도서관 누리집 공고를 통해 선착순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 ‘호남 소담소당 캠프’ 성료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함께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들의 건강한 삶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호남 소담소당 캠프’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소담소당캠프’는 소박하게 웃는 작은 미소로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들의 행복을 의미하는 뜻으로, 소아청소년 당뇨 환우들이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고,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심리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된 캠프다. 1박 2일동안 정읍 내장산 생태탐방원에서 진행된 캠프에는 약 3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롯하여 간호, 치과, 영양,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해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법, 저혈당 대처법, 건강한 식단과 구강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당뇨 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해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심리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근기자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교수는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자기관리를 통해 학교생활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철 병원장은 “소아청소년 환우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나아가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상근 기자

잃어버린 소리찾기... 김제 제일보청기, 사랑의 보청기 기증

김제시(시장 정성주)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울림이 퍼졌다. 5일 시에 따르면 김제제일보청기는 지난달 9일 성암노인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 29일 3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보청기를 김제시 교향동에 거주하는 A 어르신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력 보조기구를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 난청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일보청기는 이번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보청기 기증을 약속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공헌을 예고했다. 보청기를 지원받은 A 어르신은 “이 나이에 다시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대화도 꺼리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지루 말아졌는데... 이렇게 좋은 보청기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오늘부터 다시 세상 소리가 들릴 것 같아 가슴이 벅차고, 도와주신 제일보청기와 성암노인복지센터 모든 분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제일보청기 최금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매년 1회 보청기 기증을 이어가겠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소리를 통해 세상과 다시 소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의 울림이 퍼졌다. 5일 시에 따르면 김제제일보청기는 지난달 9일 성암노인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후, 지난달 29일 3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보청기를 김제시 교향동에 거주하는 A 어르신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청력 보조기구를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 난청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으며, 제일보청기는 이번을 시작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보청기 기증을 약속하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공헌을 예고했다. 보청기를 지원받은 A 어르신은 “이 나이에 다시 이런 선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대화도 꺼리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지루 말아졌는데... 이렇게 좋은 보청기를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오늘부터 다시 세상 소리가 들릴 것 같아 가슴이 벅차고, 도와주신 제일보청기와 성암노인복지센터 모든 분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제일보청기 최금주 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매년 1회 보청기 기증을 이어가겠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소리를 통해 세상과 다시 소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임실군 주니어보드, 신규 공직자 길잡이 ‘슬기로운 공직생활’ 발간

임실군 주니어보드가 지난달 31일 자연차 및 신규 공직자의 빠른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제작한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군 25개 부서와 12개 읍·면에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슬기로운 공직생활’은 공직 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업무와 업무 처리 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과 선배 공직자들의 노하우가 담긴 업무안내서로, 총 8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실군 조직 및 지역 현황 △기초 행정 업무 △공문서 작성법 △회계·예산 처리 △대민 업무 등 공직 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각종 상황과 난이도 별로 구성되어, 자연차 공무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기획·발간한 임실군 주니어보드는 7급 이하 군 소속 청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협의체이다. 2022년 첫 출범 후 현재 24명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2기’가 운영 중이며,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중



점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주니어보드 활동을 통해 MZ세대 공직자의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 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에 주니어보드에서 발간한 책자가 신규·자연차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공직 적응으로 군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협 전주시지부, 시에 보양식 꾸러미 300세트 전달

농협 전주시지부(지부장 하원진)가 지역 소외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5일 전주시에 보양식 꾸러미 300세트(삼계탕 600개)를 전달했다. NH도농상생운동본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박병철 NH전북농협노동조합 위원장, 하양진 농협전주시지부장 등이 참석,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달된 보양식 꾸러미는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주시 관내 노인복지관에 배부되어,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식사로 제공될 예정이다. /오상근기자



전은지역사랑봉사단, 순창군에 성금 400만원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공동단장 백종일 은행장, 정원호 노조위원장)은 순창군장애인복지관에서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4월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각 기관별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하고 있다. 순창군장애인복지관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가 장애인들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의 안정성 및 편의성, 자립능력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오상근기자



전북가족센터-소방본부, 다문화가정 안전체험캠프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는 지난 2일 전북 119안전체험관에서 전북소방본부와 공동으로 도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제3회 다문화가정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다문화가정이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프에는 도가족센터를 포함해 고창군가족센터, 장수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27가구,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장은성기자



전북자치도, 생태계 살리는 미꾸라지류 43만 마리 방류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전통 수산자원 확충을 위해 미꾸라지류 43만6,364마리를 김제시 원평천, 고창군 주진천, 부안군 신문천 및 계화조류지 등 도내 주요 하천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된 미꾸라지류(미꾸라지, 미꾸리)는 전장 4cm 이상의 건강한 종자로, 방류 전 전염병 검사를 통해 질병 및 병원체가 모두 불검출된 우량종이다. 연구소는 이번 방류가 하천의 수질 정화와 생태계 복원은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꾸라지류는 하천 바닥을 파고드는 습성 덕분에 퇴적물 교란과 산소 순환을 유도해 수질 정화에 효과적이다. /오만호기자